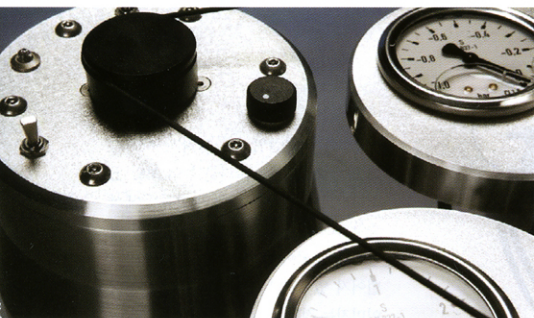


Analog





V.Y.G.E.R. Indian Signature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함급 턴테이블의 매력

글 | 최윤욱

지금껏 개인 애호가 집에서 들었던 아날로그 음 중에는 해상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었고, 음색이 아주 고풍적인 경우, 저역의 아주 인상적인 경우도 있었다. 음악적 밸런스와 흡인력이 아날로그 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박성준 님 덕의 인디언 시그너처는 가장 인상적인 아날로그음을 들려주었다.

덕에 보내드리지 못하는 턴테이블 리뷰 의미가 들어왔다는 편집부의 전화를 받았다. 무슨 회사의 어떤 턴테이블이기에 배달이 안 된다는 것인가 먼저 궁금했다. 바이저라는 회사의 인디언 시그너처(Indian Signature)란다. 사진으로 보았던 터라 크기과 무게를 짐작해보니 집에 가져다 달라는 말은 하기가 곤란한 턴테이블인 것이 사실이었다. 호기심은 그렇거라도 한 번 시청을 해서 총속시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마음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 시청실이 아닌 오디오숍의 낯선 환경에 설치된 턴테이블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었다. 잠시의 갈등은 동호인인 박성준님이 인디언 시그너처 턴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는 것으로 끝났고 리뷰를 흔쾌히 받아 들었다.

오디오를 하는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 봤다고 생각했지만 수입원인 오디오 갤러리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

실을 LP를 들고 찾아가면서 알고는 적잖게 놀랐다. 오디오갤러리에 도착해서 안내를 받아 인디언 시그너처가 설치된 지하 시청실로 내려갔다. 위용을 자랑하는 시스템은 베리타 오디오의 로엔그린 2스피커, 오디오 리서치 레퍼런스 610T 파워 앰프, 에스텍스의 칼립소 프리, 그리고 동사의 레아 포노 앰프로 연결되어 있었다.

범상치 않게 생긴 외모로 '내가 바로 인디언 시그너처요' 하고 말하는 것 같이 시청실 입구에 우뚝 서 있었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 기둥을 연상시키는 네 개의 기둥이 위세를 자랑하듯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 네 개의 신전 기둥 중 세 개는 70kg에 달하는 베이스와 플레터를 받치는 역할을 한다. 기둥 안에 탄성을 가진 와이어로 베이스를 매달고 있는 구조다. 베이스가 플레터 아래로 길게 내려와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베이스 전체의 무게 중심을 기둥과 연결된 부분보다 낮게 만들어서 뒤통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무게 중심을 낮추어 뱅이 가 아닌 제자리로 언제나 돌아오자 하는 오목이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나머지 한 개의 신전 기둥은 모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모터를 본체에 부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별도의 기둥에 수납해서 모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베이스로 전해지지 않도록 설계했다. 모터는 직류 모터가 아닌 스위스 제작의 교류 싱크로너스 모터를 채택하고 있다. 이 모터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인디언 시그너처는 네 개의 신전 기둥 말고도 부속장치가 많다. 방열판이 보이는 알루미늄 박스는 압축 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서다. 공기를 압축하는 기동부와 공기 압축 시 발생하는 열을 처리하기 위해 방열판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네 개의 기둥 아래에 있는 좀더 작은 박스는 에어탱크와 수분 등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장치다. 컴프레서에서 나온 압축공기는 압축기의 특성상 일정한 압력으로 나



오는 것이 아니라

물결치듯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압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 이 압력의 파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에어탱크를 거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압축공기에 수분이나 불순물이 있을 경우 공기 부양되는 플래터나 톤암의 미세한 공기구멍을 막아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충분히 걸러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플래터가 압축공기에 의해서 공중 부양되는 구조라고 설명을 들은 터라 내심 플래터 내부 구조가 궁금했다. 열이 불수는 없냐고 물을 참인데 내가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서 과장남이 플래터를 번쩍 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내부는 50mm 정도 직경의 축이 솟아 있고 그 축에 압축 공기가 새어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여러 개 규칙적으로 나 있었다. 구멍 안을 들여다보니 일자로 홈이 난 볼트 머리가 보였다. 새어나오는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장치로 보인다. 그걸 균일하게 여러 개 구멍만 뚫으면 되지 왜 조정이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답은 플래터가 벨트에 걸려서 돌아가는 구조라서 모터 쪽으로 당겨지

기나 하면 모터와 플래터가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플래터는 모터가 있는 쪽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돌아가게 된다. 이럴 경우 공기가 균일하게 배출되면 모터가 있는 쪽은 공기가 새어나오는 유격이 커지게 되고 반대쪽은 벨트의 장력에 의해서 유격이 좁아지게 된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터가 있는 쪽의 플래터 축에서는 공기를 적게 나오게 하고 반대쪽은 공기가 조금 더 나오게 해야 양쪽의 유격이 같아진 상태에서 플래터가 회전하게 된다. 유심히 관찰할수록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디언 시그너처에는 비전(Vision)이라는 이름의 리니어 트랙킹 암이 장착되어 있다. 컴프레서에서 만들어진 압축공기는 플래터만 공중부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톤암도 공중부양시킨다. 압축공기로 암대가 부양된 상태에서 정교한 수평축을 따라 저항이 거의 없이 이동하게 된다. 암대는 추측컨대 카본 재질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무게가 아주 가벼우면서 강성이 좋아서 리니어 트랙킹 암의 기본 조건인 이동 중량이 작아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생소한 시청실인지라 필자가 가져간 LP를 먼저 걸어서 소리를 들어 보았다. 스피커 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진 듯해서 중음과 스피커 사이에 위치하는 악기 배열이 성긴 편이었다. 스피커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지만 가운데에서 잡혀야 할 이미지는 정확히 잡혔다. 슈팅 연주의 스페인 교향곡에서부터 마이클 레빈 연주의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까지 들었다. 두 음반 모두 레코드의 외주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내주로 갈수록 고역의 울리고 찌그러짐이 느껴졌다. 여태껏 피복 톤암만 사용하던 음반이라서 문제인가 싶어 산 지 얼마 안 된 노라 존스의 LP를 들었다. 역시 외주의 'Don't

는 힘을 받는 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상쇄하기 위해서다. 무슨 애

Know Why'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주의 'Turn Me On'은 찌그러진 소리를 들려주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싶어 암을 자세히 살펴보니 VTA가 잘못되어 있었다. 톤암의 뒤가 내려앉아서 레코드와 톤암이 평행을 유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것.

비전 암의 구조도 살펴봄 겸 이리저리 만져서 VTA를 맞추어 보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압축 부분의 원통형 노브를 아무리 돌려도 VTA는 조정이 되지 않았고 소리는 처음보다 더 나빠진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 암 베이스에 동전을 받치니 황당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 나왔다. 여태껏 톤암을 많이 만져 왔지만 받침 하나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톤암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한참을 실망이 한 끝에 톤암 축 부분의 노브에 불량 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나중에 이 부품을 교체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오디오갤러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주에서는 찌그러진 소리를 들려주었지만 외주에서 들려준 소리는 분명 만만치 않은 음이라는 것을 느낀 수 있었다. 결국 오디오갤러리에서의 시청은 인디언 시그너처의 가능성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인디언 시그너처를 사용하는 박성준 님에게 방문 시청이 가능한 날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오디오갤러리에서의 시

청만으로는 인디언 시그너처의 진면목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약간의 조바심으로 기다렸다. 방문 시침이 가능한 날짜가 잡혀서 박성준 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박성준 님은 오디오 마니아이기 이전에 직업적으로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다. 몇 번 댁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소리가 그 때마다 인상적이었다. 시스템의 소리가 인상적인 것 말고도 소리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분으로 필자가 아는 한 소리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 도달한 몇 안 되는 마니아 중 하나다. 전에 방문했을 때는 트랜스포트와 컨버터 사이에 사용하는 디지털 케이블이 바닥에 닿았는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까지도 예민하게 구별해내서 필자가 혀를 내두른 적도 있다.

오디오갤러리에서의 경험 때문에 방문하자마자 세팅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물었다. 제작자가 거의 하루 걸려서 세팅을 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단지 조정을 한 것이라면 톤암 축 부분의 위에 있는 노브를 약간 돌려 옆에 붙어 있는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이 약간 바뀌게 한 것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노브를 움직이면 톤 암 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VTA가 조정되지는 않았다. 톤암을 베이스에 톤암 축이 고정되게 하는 힘을 조정하게 하는 것인데 이 장력이 조금만 변해도 소리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음상이 앞으로 나오면서 포워드해지기도 하고 무대가 뒤로 들어가면서 다소곳하게 변하기도 했다. 소리의 특성이 변하기는 했지만 어느 경우에도 찌그러진거나 왜곡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외부에서부터 내주까지 균일한 음질로 안정적인 아날로그 사운드를 재생해 주었다.

시침실 배치가 일반적이지 않고 마름모꼴의 양쪽 옆에 스피커를 배치해서 스피커 사이가 뒤로 깊게 공간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런 배치 탓에 스피커와 청취 위치의 거리가 약간 가까운 듯한 느낌을 있었지만 거함급인 턴테의 소버린이 뿜어내는 소리는 훌륭했다. 저역의 에너지감도



충분하고 중역과 고역에서의 음악적 흡인력도 상당했다. 해상력이나 분해능을 강조하는 소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음악적 밸런스를 위주로 세팅된 소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디오갤러리에서 가늠성만 확인했던 인디언 시그너처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실감할 수 있었다. 공중부양 플라타네게 배경이 아주 깨끗하고 노이즈가 거의 없는 아날로그 사운드를 들려주었다. 노라 존스의 새 판을 들으면서는 CD나 SACD로 착각할 만큼 표현력이 우수해도 느낄 수 없었다. 기함급 턴테이름답게 저역의 깊이나 양도 충분했고 충주시에라도 무대가 흔들리거나 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시침 중에 발견한 사항 하나는 판을 플라타네게 밀착시키는 나사식 스텝베어링이름 열마나 조이느냐에 따라서 음이 상당히 많이 변한다는 점이다. 진공 흡착을 시도하면 이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정도 외에는 다른 생각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다.

인디언 시그너처는 궁극에 가까이 간 아날로그 소리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뛰어나고 음악적 표현력이 훌륭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지금껏 개인 애호가자의 집에서 들었던 아날로그 음 중에는 해상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었고, 음색이 아주 고혹적인 경우, 저역의 아주 인상적인 경우도 있었다. 음악적 밸런스와 흡인력이 아날로그 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박성준 님 댁의 인디언 시그너처는 가장 인상적인 아날로그음을 들려주었다. **A**

수입원 : 오디오갤러리 (02)926-9084
 · 가격 : 6,800만원
 · 레조넌스 주파수 : 4Hz
 · 톤암 공기압 : 1Bar~14.5Psi
 · 플라타네 무게 : 16kg
 · 시스템 무게 : 120kg